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문창국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조은실 /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용산동 6가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새벽기도는 계속된다

온누리가 함께 한 40일 동안의 기도열전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났다. 서빙고 기준 하루 1천 3백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부르짖었다. 개인과 가족, 나라와 민족,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난 가운데 있는 환우와 형제자매를 위해 눈물을 쏟았다.

온 누리가 예배당이었다. 국내 10개 캠퍼스, 해외비전교회, 기도처뿐만이 아니었다. 광명의 한 태권도 학원, 복누리 비전센터, 일산의 한 어린이집도 예배당으로 바뀌었다. CGNTV를 통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많았다.

올해 새벽기도회 주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재훈 목사는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의 성도들까지 세대가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했다. 특히 차세대 새벽기도 열기가 뜨거웠다. 차세대들의 새벽기도회 완주율이 무려 93%나 되었다. 고사리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에서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40일 동안 기도열전이 이어졌다. 택시기사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새벽기도는 계속된다.

와 40일 동안 계약을 맺고 일산에서 서빙고까지 온 자매가 있는가하면, 할머니, 부모, 태중의 아이까지 가족 7명이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가족도 있었다. 순원들과 함께 새

벽기도회에 나오기 위해 운전기사를 자청한 순장과 카풀로 새벽기도회에 나온 성도도 있었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새

벽예배는 계속된다.

▶ 관련기사 6~7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Acts29 비전 컨퍼런스 개최

해외비전교회 교역자들의 '안식과 여정'



지난해 2월 강원도 추양하우스에서 열린 Acts29 비전 컨퍼런스 참석자들.

2014 상반기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2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Y리

조트에서 '안식과 여정'을 주제로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사, 해외비전교회 전임

교역자, Acts29 담당교역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Acts29 비전컨퍼런스는 해외비전교회 교역자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cts29 비전 컨퍼런스는 도착예배를 시작으로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지역별 나눔 ▶순례의 길 탐방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두 차례 해외비전교회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온누리교회 목회비전을 공유하고 이민목회의 어려움에 대해 나눈다.

해외비전교회 교역자들은 컨퍼런스를 마치고 2014 온누리교회 목회사관학교에 참석한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M미션, 봉사자 모집

온누리M미션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주민 위한 설날 수련회'를 섬긴다. 수련회에서는 온누리M미션

소속 17개 공동체가 나라별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문의: 010-3937-3927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온누리 M미션 설날봉사자 모집

날 짜	공 동 체	장 소
1/29	러시아연합 (2/1까지)	강화말씀의집
	캄보디아 (2/1까지)	M센터 1/4층
1/30	몽골연합 (2/1까지)	TIM 비전센터
	스리랑카 (2/2까지)	수지수양관
	방글라데시 (1/31까지)	M센터 2/2층
	베트남 (1/31까지)	Acts29비전빌리지
1/31	필리핀 (2/1까지)	강원도 설악
	태국(2/2까지)	영흥도펜션
	아랍	서빙고 B01
2/1	네팔	서빙고-M센터 2/4층 / 하나로쉼터(안산예배)
	미얀마 (2/2까지)	미얀마쉼터

온누리신문 기자모집

분야: 취재 및 사진기자

자격: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으로 문서 사역에 헌신한 분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기명기사, 포트폴리오 (사진기자)

보내실 곳: one@onnuri.org 제출기한: 2월 5일까지

문의: 김남원 부장 (02-3215-3193)

다음주(2월 2일자) 신문은 설 연휴 인쇄소 휴무관계로 휴간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요약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입니다.

마귀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보이는 빵도 주십니다.

또 사탄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순종하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에 대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라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고백은 431년 전 교회의회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4세기 동안 고민과 오해, 이단논쟁 등 수많은 갈등 속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 유혹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사람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히 4:15).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과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시험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또 다른 고민은 예수님이라면 시험을 거뜬히 통과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이 감동적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고통은 예수님 옆에서 못 박힌 강도들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통을 쉽게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알고 있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동일하게 체험하신 분이면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느냐는 것인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1~2절).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피로도 쌓였습니다. 풍랑이 치는 배위에서 굶아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곧장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금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금식하며 영적전쟁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을 당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사탄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공격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

성령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고 알아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세상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도 더욱 강해집니다.

사탄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 자마자 공격했습니다. 헤롯왕의 질투심을 불러 일으켜 아무런 죄 없는 두 살 미만의 아이

들을 죽였습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의 성장과정을 주목하면서 공격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 임재 하는 것을 사탄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가만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사탄이 감히 대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공격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여러 번 공격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3절).

마귀가 예수님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나와 같은 편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머리에 뿔을 달고 다가오지 않고 아주 가까운 동역자처럼 접근합니다.

또 사탄은 언제나 만약이라는 어법을 씁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만약이라는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사실에 붙이면 사실의 힘이 약해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한 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대해 만약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면 과거를 회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만약이라는 어법을 쓰는 것은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약이라는 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

“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대신하신 메시아입니다. ”

라고 제안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메시지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탄이 인정했습니다. 사탄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시험한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 기적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아담이 당한 시험보다 혹독했습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배부른 몸으로 사탄을 대면했지만 예수님은 굶주림 속에서 대면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동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아담의 숙제는 죄 없는 세상에서 죄 없이 사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숙제는 피로 물든 세상에서 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됐다”(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빵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빵을 먹어도 육신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이 없다면 육신의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보이는 빵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논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6-7절).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사탄을 경배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이 경제적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유혹은 정치적 시험입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으로 유혹했지만 이번에는 인간의 권력을 유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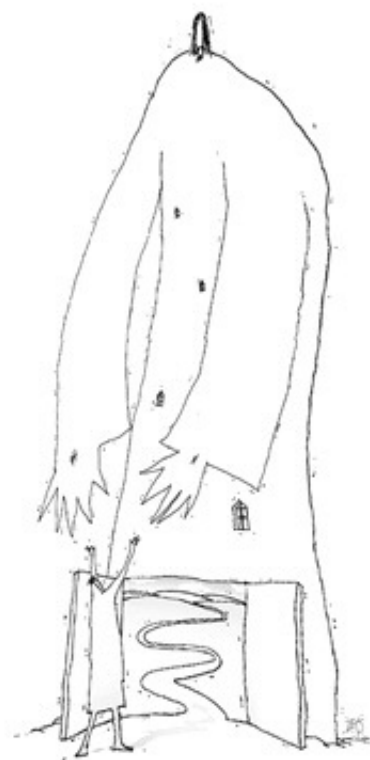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받았지만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받았습니다.

사탄에게는 환경과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꺼이 사탄을 따라가셨습니다.

와 영광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마치 권세와 영광이 없는 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하면 자신들의 제안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한 계입니다. 악한 사람은 세상을 악하게 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인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됐다’”(8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사탄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전하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권세

와 영광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마치 권세와 영광이 없는 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다.

뛰어내려보라 ...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공격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행해졌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

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기록돼 있소”(9-11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고 기록됐다”(12절).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메시야가 되는 지름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대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시험을 아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고난과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당하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박정일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amazing
grace

35일째 / 1월 20일

이재훈 목사

새 언약의 은혜 I

예레미야 31:31-34

이스라엘 역사 중에 새 언약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이스라엘 멸망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철저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처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먼저 주어진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주어진 약속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단계의 약속이 필요하

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은 돌에 율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에 새겨진 율법을 들고 행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생각에 넣어주고, 마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암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 행

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행해야 하는 것(to do)이지만 새 언약은 되는 것(to be)입니다. 옛 언약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호 6:3). 그러나 새 언약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렘 31:34). 새 언약의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성령의 임재입니다(겔 36:26-27). 용서로 끝납니다(렘 31:3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

호와를 알라라고 하지 않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때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6일째 / 1월 21일

새 언약의 은혜 II

히브리서 9:11-17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입니다. 따라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15절).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입니다. 따라서 참된 중보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은 종교적 의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9,14절).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으로는 순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별 받을까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심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힘써서 섬기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16,17절). 새 언약이 우리에게 유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언약의 모든 효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

러운지 알아야 합니다(엡 1:18).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산이 약속되어 있습니다(벧전 1:4). 이 세상에 유산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유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축복을 그분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유산은 세상에 묻어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약속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37일째 / 1월 22일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민수기 14:11-25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첫째, 단순히 불평불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 괴롭히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결국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의롭습니다.(롬 2:5). 둘째,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사람

들이 스스로 선택함으로 주어집니다. 사람이 진노를 받을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내가 새로운 민족, 크고 강한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민 14:11-12)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를 때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멸절당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보자로 부르신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

해서 놀라운 중보의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3-16절). 불순종처럼 보이는 순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겔 20:9). 왜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겔 36:22-23).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17-18절). 그래서 당연한 진노임에도 불구하고 거두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은혜가 곳곳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amazing grace



38일째 / 1월 23일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

스가랴 3:1-10

오늘 본문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판결을 내리십니다(2절). 이것은 은혜의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의 판결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중하다 해도 하나님의 선택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기에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십니다(2절 후반). 요한 웨슬레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불에서 꺼내진 나무와 같다”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교양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다 불에 그슬린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불에서 구원하신 이들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사탄의 고소하는 근거를 없애버리십니다. 만일 사탄을 책망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고소의 근거를 없애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순’이라는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8절). 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이 있기에 어떤 환경에도 그 환경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가지로 나오는 것이 순입니다. 둘째는 돌입니다(9절). 이 돌은 살아있습니다. 돌에 또 다른 돌이 연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집니다. 셋째는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는 고난 받는 종입니다(9절). 이 은혜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의의 옷을 덧입혔음을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39일째 / 1월 24일

늦은 비의 은혜

스가랴 10:1-12

가나안 땅에는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가을(10-11월)에 내리는 비가 있고, 봄(3-4월)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가을비는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는 씨가 발아하고 움트게 하는 비입니다. 추수 직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 구하라”고 합니다(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 은혜라 할지라도 매일 은혜를 구하며 사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간절함으로 약속된 은혜가 나

의 삶 속에서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예비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은혜가운데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약속된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이뤄지도록 간절히 담대하게 기도합니다(히 4:15-16). 이 담대함은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뤄진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늦은 비를 가져다주시는 분이 있

습니다(4절). 이분은 모퉁이 돌 같은 분입니다. 그 당시의 건축은 모퉁이 돌이 크기와 재질이 모든 건물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퉁이 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막의 말뚝입니다(4절). 활 같은 분입니다(4절).

그분이 오심으로 늦은 비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세 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6,7절). 마치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의 상처가 깨끗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8절).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양들이 모입니다. 휘파람 소리는 즐거운

소리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통의 파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11, 12절). 늦은 비가 임할 때 은혜 속에서 자라는 사람은 고통의 파도를 이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약속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파도는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일으키시고 내 주변의 교만한 힘과 세력들을 청소하게 하시는 파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버림받은 것 같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날마다 듣고 순종하는 인생, 고통의 파도를 넘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째 / 1월 25일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

사무엘하 9:1-13

어느 날 문득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의 자손 중에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이 아니라 사울의 자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 대상을 찾아보니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그의 이름처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5살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왕궁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 때 유모가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후손이었지만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고, 다윗 앞에 섰을 때 므비보셋은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므비보셋에게 은혜(헤세드)를 베풀겠다고 한 것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은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은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줘도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주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시 23:5) 여기서 ‘상’은 밥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적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적들은 식탁을 덮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천군천사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일평생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amazing grace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종료

은혜, 감사 그리고 축복의 40일

‘특별’이 빠졌다. 선물도 없다. 특별한 성도만 있었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가 열린 국내 10개 캠퍼스와 기도처, 학원, 비전센터 등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새벽을 깨운 성도들로 북적였다. 조모, 부모, 손자까지 3대가 새벽예배를 나오는가 하면 순원들과 함께 새벽기도의 은혜를 받고 싶어 40일 동안 운전기사를 자청한 순장도 있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함해 7명의 가족이 함께 새벽기도회에 나와 예배드렸고,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택시기사와 계약을 맺고 일산에서 교회까지 온 자매도 있었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의 피날레를 성도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정리했다. 은혜, 감사, 축복의 40일 이야기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1 새벽기도회 오는 길

운전기사 자청한 순장

택시기사와 40일 동안 맺은 계약



신수지 자매(오른쪽)와 여동생

40일 새벽기도를 위해 매일 새벽 택시를 타고 일산에서 서빙고까지 오가는 청년이 있다. 여호수아공동체 심수지 자매다. 그는 온누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2011년부터 새벽기도를 결단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는 올해 새벽기도가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해 서로 의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적지 않은 택시비도 친구들과 나누어 냈다. 덕분에 책임감 때문이라도 꾸준히 출석할 수 있었다. 특히 공동체가 아닌 교회 예배에만 출석하던 여동생도 함께 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졌다. 평소에는 어려웠던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며 자매는 더욱 가까워졌다. 평소 구두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심수지 자매. 그는 일과 더불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나야 비로소 새해가 시작된다고 느낀다는 심수지 자매에게 올 한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된다.

/ 박익새 수습기자



송진환 순장, 민희선 순원

순원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새벽기도에 나온 여호수아공동체 순장 송진환 형제. 남부터미널 근처에 사는 그는 목동, 선유도에 사는 순원들을 데리고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나와 새벽예배를 드렸다.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송진환 형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절실한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나왔다. 그는 이 시간이 은혜의 기회이자 축복의 시간이라

고 생각해 순원들도 함께할 것을 권면했고 순원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특히 이번 새벽기도는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콤플렉스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그는 아직 미혼이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설교 말씀에 순종해, 후에 자신도 엘리야나 비올과 같은 하나님께 구별된 평생 쓰임 받는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기도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송진환 형제와 함께 그의 순원 민희선 자매가 함께했다. 민희선 자매는 새벽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고 싶다”고 고백하며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 박익새 수습기자

다섯 명 카풀 “우리 완주했어요”



최현주 순장

“새벽부터 제 차를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면 새벽기도에 갈까 말까 망설일 수 없었죠” 강남B공동체 최현주 순장은 ‘카풀’을 통해 40일 새벽기도회를 완주했다. 지난해에는 절반도 참석하지 못했던 새벽기도회였다.

최현주 순장과 함께 카풀에 참여했던 인원은 다섯 명, 동원된 차량만 3대다. 운전자의 순번은 전날 미리 정했지만 다음 날 먼저 일어나 출발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날의 기사가 되었다. 하루는 한 사람이 뒤늦게 연락하는 바

람에 다섯 명 모두가 지각한 날도 있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지각하기도 했지만, 그날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기쁨으로 섬긴 40일 동안의 카풀이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최현주 순장. 끝으로 그는 “함께하는 지체들의 존재가 은혜롭고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정현주 수습기자



2 가족과 함께

3대가 함께한 새벽기도회



배정현 성도 가족

엄마, 아빠, 두 아들, 할머니, 조카,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3대가 새벽기도를 완주했다. 동대문중앙공동체 배정현 성도의 가족 이야기다. 배정현 성도와 아내 강주연 성도, 두 아들 배찬혁 배준혁, 어머니 김영희 집사, 조카 이재상, 그리고 2월 출산 예정인 아이까지 일곱 명이 매일 새벽을 깨웠다. 이들 부부는 6년 전 큰 아이를 임신

했을 때부터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 지금은 만삭의 몸이라 힘들지만 아내 강주연 성도는 “새벽기도회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힘낼 수 있었다”고 했다.

가족 7명이 함께 새벽예배를 나오게 된 계기는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체험했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 때문이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는 “부모가 자식에게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다”며 이번 새벽예배에 함께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배정현 성도 가족의 기도 제목은 건강한 셋째 아이 출산이다. 막내 아들까지 8명의 가족이 함께하는 내년 새벽기도회를 기대해본다.

/ 정현주 수습기자

40일 새벽예배와 40일 가정예배



김성현 김순덕 집사 가족

“저희 가정은 올해 교회 표어에 발맞추어 40일 새벽기도와 함께 40일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수원 남누리공동체 김순덕 집사는 남편 김성현 집사와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아들 경남, 태현을 데리고 빠짐없이 40일 새벽을 깨웠다. 작

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올해에는 새벽예배와 함께 저녁에는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것. 올해에는 가족 넷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생수의 강과 같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성탄 때에는 친정 식구들이 찾아와 다음 날 새벽예배를 할 아버지 할머니, 부부, 자녀 3대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다. 김순덕 집사는 아이들과 함께 새벽예배와 가정예배를 드리며 매일 감사할 일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갔고, 그때마다 깨닫지 못했던 삶의 의문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을 누렸다”고 고백했다. 또한 이번 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며 행복해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남편과 아내, 아이 넷과 함께



곽미애 집사

양지 온누리교회 팍미애 집사는 남편, 아이 넷과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교회와 집의 거리가 멀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점점 게을러져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게 되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 가장 어려웠을 때 가족들과 다니던 새벽예배가 떠올랐고 “하나님, 이제 맘에 안 드시면 어디 한 번 움직이게 해보시죠”라고 했다.

그런데 작년까지 토요일에만 진행하던 차세

대 새벽기도가 금년부터 1월 내내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아이들의 새벽예배 때문이라도 교회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가 족습니다’ 하며 아이들을 태워 교회로 갔다. 교회에서는 빵과 차를 대접해주었고, 진절하 대화로 위로해주었고 교제해주었다.

그 교제 가운데 순종하니 호주에서 돌아온 큰 딸은 예뻐 교사가 되었고, 1월 21일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CGNTV 생방송으로 열린 새벽기도회에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가 찬양대에 서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비취졌다. 호주에 남아있는 둘째 아이는 그곳에서 청년부 리더가 되어 섬기게 됐다. “아, 주님! 저희 자녀를 이렇게도 써 주실 수 있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도장 받는 재미, ‘차세대 새벽예배’



전기훈 이신숙 성도 가족

“파죽이 없어 헤이해졌었다”는 전기훈 이신숙(동작공동체) 부부는 1월부터 시작된 차세대 자녀의 새벽예배를 통해 힘을 받았다. 부부는 아이 전진호가 6살(현재 8세)이 되었을 때부터 새벽예배를 드렸다. 올해에도 아이의 방학을 맞아 가족이 모두 새벽예배를 드리기 시

작했다. 때마침 교회에서도 차세대 아이들의 방학에 맞춰 온가족이 함께하는 새벽기도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것이 부부를 새벽기도 완주로 이끌었다.

“사실 새벽예배 파죽이 없어서 저희 부부의 마음가짐이 헤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차세대에서 새벽예배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부모 때문에 아이가 도장을 못 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부모가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왔다. 도장은 하나씩 채워졌고, 새벽기도는 완주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새벽을 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정지은 기자

3 나에게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란?

‘감사’와 ‘평안’

“몇 년 동안 습관처럼 완주했던 새벽기도를 올해에는 차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번 새벽기도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와 ‘평안’이었습니다.”

/ 이명현 성도(남양주 구리공동체)

‘가족 구원’

“작년 새벽기도 이후 12월에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셨고, 이제는 오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새벽기도 은혜는 ‘가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매일 아들딸과 함께 새벽을 깨웠습니다.”

/ 김재영 전동준 전소현(성동광진공동체)

‘감사, 회복’

“지난해부터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었고, 둘째 아이 출산 이후로 겪던 원인을 육체의 통증과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홀로 신음하던 제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이지만 일지라도 마련해주셨습니다.”

/ 박예순 성도(광명공동체)

아름다운 교제

“올해는 특별히 서대문공동체에 작은 기도처를 허락해주셔서 그곳에서 CGNTV를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동체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 후에는 떡을 나누는 아름다운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 정소는 성도(서대문공동체)

Acts29비전 이뤄가는 '농어촌선교회'

앙코르 고창러브소나타

선운사의 빼어난 절경과 고인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돼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전라북도 고창.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적을 지닌 지역이지만, 복음화율은 10%미만에 불과하다. 불교와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있어 사람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이다. 농사일로 바빠 교회 나오기 힘든 상황도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농어촌 사람들의 문화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접할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유명인의 등장은 큰 관심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최근 문화전도집회 형식이 농어촌 교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향력 있는 신앙인의 노래와 간증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져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회와 세시봉 윤희주가 손을 잡았다. 작년부터 고창, 남해, 춘천 지역의 문화전도집회를 이어왔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였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앙코르 고창 전도집회이다. 지난 16일(목),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고창 러브소나타 하루의 기록을 담았다.



“우리 동상이 교회 안다니는데 윤희주 콘서트 보고 앞으로는 다닐거여.”

이옥애 권사(아산교회)가 이웃사촌인 정명숙(57)씨를 전도해 콘서트에 함께 왔다. “땅콩을 까고 있는데 손을 잡더니 데리고 왔어요. 시골서 살다보니 바빠서 교회 가기 힘든데 윤희주도 보고 노래도 들을 겸 따라 왔지요.”

세시봉 윤희주가 온다는 소식에 고창 주민들은 들떠있었다. 콘서트 표는 오전부터 매진됐다. 공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문화의 전당은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저녁 7시, 공연장은 700명이 넘는 전도대상자와 성도들로 가득 찼다. 윤희주 장로가 가수 세시봉으로 소개될 때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장로는 유행가와 CM송, 찬송가 등 10곡이 넘는 노래를 불렀다. 참석자들은 아는 노래가 나올 때 마다 같이 따라 부르며 추억에 젖어들었다. 공연의 클라이막스는 찬송가부터였다. 윤 장로는 젊은 날 세상의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허무와 공허했던 마음을 찬송으로 고백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노래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친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는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으로 그 마음을 대변했다.



106개 고창교회 연합전도집회, 주강사 윤희주 장로 고창, 남해, 춘천 이어 앙코르 고창집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한 찬양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였다.

찬양 인도에 따라 참석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150분의 공연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다. 여개 수술과 대상포진으로 연약해진

육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콘서트에 임한 윤 장로는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다.

전도집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참석자 송덕현 씨는 “올해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인데 윤 장로님 말씀 듣고 열심

히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아내 손에 이끌려 나왔다는 김재환 씨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고백했다. 참석한 성도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주었다. 고수교회의 한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기쁘다”고 함박웃음을 지었고, 무장교회 성도는 “세시봉 가수로만 알았는데 신앙인으로 보니까 정말 은혜였다”면서 “새신자들과 함께 왔는데 눈물 흘리며 보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한 성북교회 강기욱 장로는 “오늘 전도한 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즐거움이 있네’라는 말에 보람됐다”며 뿌듯한 심정을 전했다.

국내 러브소나타를 꿈꾸며

양재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회는 고창 러브소나타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소외된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울리길 소망한다. 앞으로 농어촌선교회는 농어촌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있는 신앙인을 발굴해 국내 러브소나타를 이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의 방찬중 집사 010-9062-0901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인터뷰

전만수 목사(고창기독교연합회 총무)



고창 러브소나타는 양재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회와 고창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해 윤희주 콘서트로 이루어졌다. 사진은 공연이 끝난 뒤 윤희주 장로와 기독교연합회 임원단, 농어촌선교회가 함께 다과회를 갖는 모습이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기독교연합회 전홍업 목사(오산교회), 윤희주 장로, 전만수 목사(원천교회), 김상기 장로, 이상우 목사(왕촌교회), 농어촌선교회 임신빈 총무, 한형식 장로, 방찬중 팀장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화전도집회는 농어촌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농어촌 사람들에게는 전도지를 돌리는 방식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공급해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길입니다.”

이번 연합전도집회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집회를 위해 작년부터 106개의 교회가 연합해 기도로 준비해왔습니다. 윤희주 장

로님께서 실감나게 복음을 전해주시며 전도대상자에서부터 성도, 이곳 목사님들까지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회를 참여하면서 사도행전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시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한 집회였습니다.”

세라핌합창단 아웃리치

필리핀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합창

이은옥
(가정사역공동체)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부모 된 마음으로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안고 지난 10일, 22명의 세라핌합창단원들과 함께 마닐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필리핀에 도착했다. 기대와는 달리 좁고 불편한 차량과 숙소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불평하기보다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다.

필리핀 방송출연!

11일, 도착예배를 시작으로 필리핀 국영 방송국에서 찬양과 필리핀 전통노래 ‘Paruparong Bukid’를 불렀다. 오후에는 ‘Jesus Followers Church’ 특별전도집회에서 찬양을 했다. 아이들은 정성껏 준비해 간 학용품과 장로합창단의 후원물품을 현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천국잔치가 따로 없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필리핀 아이들의 모습이 좁은 차량과 숙소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필리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사진도 찍으며 금새 가까워졌다.

산티아고 최초음악회

12일 주일에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Greenhills Fellowship Church’ 예배에서 특별찬양을 했다.

13일 새벽에는 마닐라 북쪽에 위치한 이사벨라의 산티아고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 지역에서는 음악회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세라핌합창단이 이 지역 최초로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그렇게 열린 음악회에서 잊지 못할 일이 생겼다. 연주 도중 소고가 사라진 것이다. 이미 전주는 시작되었고 아이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때, 성가사님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나를 봐, 나를 봐!” 성가사님의 모습이 마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같았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우리는 앙코르곡으로 ‘Paruparong Bukid’를 연주했다.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다.

공연을 마친 후에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필리핀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행복한 음악회가 그렇게 끝났다.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마지막 날,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부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성경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선교사님들과 교제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러웠다.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마치며 하나님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세라핌합창단원들이 지휘에 따라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처럼,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Point5 공동체 아웃리치

모두 천국에 속한 사람들

신주연
(1.5세대를 위한 Point5공동체)

감동의 크기를 험소한 언어로 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번 유럽연합청소년 수련회가 그렇다. ‘정말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에 도착하는 순간 벅찬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네덜란드 유학생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유학시절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닌 음악회를 위한 장소로 쓰이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또 매주 예배를 드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럽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녔던 한인교회에서 이질적인 문화로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들을 만났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자신의 속마음도 꺼내놓지 못했다. 그 아이들을 품고 싶었는데... 사정상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언젠가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남긴 채.

동역자들과 다시 밝은 네덜란드

공동체에서 네덜란드로 아웃리치를 간



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에 품은 그 땅을 다시 밟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나를 미리 그 땅에 보내셨던 것 같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울며 기도할 동역자들이 있다.

네덜란드 도착.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과 어색함이 있었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모

두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정이었다. 처음에는 좀처럼 속내를 표현하지 않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었다. 어색하던 사이가 짧은 시간에 정이 들어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유럽 위한 중보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제 유럽의 회복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의 많은 청소년들이 귀하게 사용할 것을 믿는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신년캠페인 - 온누리 주차, 이대로는 안 된다 3

서빙고는 버스, 양재는 셔틀

신동아아파트에 사는 주민 이 모씨는 발자국 소리 노이로제에 걸렸다.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저놈의 발자국 소리 좀 안 들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올해로 3년 째 신동아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는 신 모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벽에 신동아아파트 경내를 지나가는 무리들이 노래를 부르기에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무슨 상관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주민들만 다닐 수 있게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라며 말끝을 흐렸는데 화를 사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교통흐름 방해와 불법주차 말고도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주민들에게 입히는 피해가 있다. 바로 신동아아파트 경내출입이다.

서빙고역에서 도보로 교회에 오는 최단거리는 신동아아파트 경내를 거쳐 오는 길이다. 매 주일 2~3천 명의 성도들이 이 길을 이용한다. 문제는 통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특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보행자 준수 사항-서빙고

서빙고역 1번 출구 나오기
6211, 2016, 3012, 100번 버스 타기

히 새벽기도회, 부흥축제 등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교회행사가 있는 날이면 소음은 더 커진다. 주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양재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에 따르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들이 내는 발자국 소리가 엄청나다고 한다. 마치 수천마리 말이 다니는 것 같다고 한다. 교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인도에 천을 깔아보기도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교회 올 때는 운동화 신고오라



보행자 준수 사항-양재

양재역, 시민의 숲 주차장에서 셔틀로 교회오기
높은 굽 신발 신지 않기, 짐 가방 끌지 않기

고 당부까지 했었다.

이제 버스와 셔틀을 타자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주차문제와 더불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이제 서빙고 온누리교회 갈 때는 버스를 타자. 서빙고역 1번 출구로 나와서 6211, 2016, 3012, 100번 버스를 타면 교회 앞에서 하차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서빙고 아파트 경내를 출입해야 하면 온누리교회로 오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 이동하자. 가급적이면 침묵하며 걷자. 특히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재 온누리교회 갈 때는 가급적 셔틀을 이용하자. 양재역, 시민의 숲 주차장에서 교회까지 수시로 셔틀이 운행되고 있다.

이동 중에는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가급적이면 무리로 다니지 말아야한다. 높은 굽 신발을 신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짐 가방도 끌면 안 된다.

‘나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더 이상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한다. 작은 노력과 실천이 주민과 교회의 상생을 위한 길이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년기획 - 이단 바로알기 2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사회봉사 내세우는 새로운 이단트랜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사회봉사를 내세워 사람들을 유혹한다.

최근 가장 활동이 두드러진 이단 단체는 단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다. 특히 자신들의 교세가 100만 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교회의 포교 전략이 주목 받고 있다. 이들은 신천지처럼 가정불화 등 반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보다 사회봉사와 같은 친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대신해 이단들이 국내에서의 활발하게 봉사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서 얻은 영향력을 발판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이메일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 내용은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불거진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50대 중반의 아들이 하나님의교회에 빠져 한 국에 갔다는 내용, 자신의 딸이 하나님의교회가 주장하는 2012년 종말을 믿고 가출했다는 내용들이었다. 하나님의교회가 해외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몽골 신문에는 하나님의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기사가 전면에 게재되고, 아프리카의 한 대통령은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후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하나님의교회를 찾기도 했다. 이들은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수많은 표창장들을 내놓으며 왜 자신들이 이단이나고 반문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 님”

안식교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교회는 1985년에 사망한 부산 해운대 출신의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그들의 교세는 십 수만 명에 이른다. 30~40대가 가장 많다. 하나님의교회의 정관에는 “성령 하나님 안상홍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신 어머니 하나님(장길자 님)을 믿을

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되어 있다. 교주의 신격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과 연관이 있다. 그들은 수많은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심지어 중앙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대처해야 할 하나님의교회의 실상이다.

교회가 변해야 한다.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이단들로 인해 양적 성장에 급급한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 사회는 기성 교회보다는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이단을 오히려 선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와 사회도 수긍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이단 예방 및 대처 활동이 필요하다. 이단들보다 더욱 경건하고 이타적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야 한다.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단들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 이 글은 타지일 교수가 저술한 <목회와 신학 총서>에 실린 내용을 발췌 및 요약했습니다.

2014 신년특집 - 온누리교회와 동남아시아

“아시아 하이웨이 따라 이스라엘까지”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이다.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 797명 중 410명(50.2%)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복음이 서진(西進)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온누리교회가 꿈꾸는 동남아시아 선교비전은 한 마디로 ‘아시아 하이웨이 따라 이스라엘까지’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중국, 인도를 거쳐 터키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동남아시아 선교의 새바람

2011년은 동남아시아 선교에 새바람을 일으킨 기념비적인 해다. 일본에서 시작된 러브소나타가 캄보디아를 거쳐 터키로, 나아가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첫 무대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 유일하게 열린 땅 캄보디아였다.

당시 캄보디아는 큰 슬픔에 빠져있었다. 매년 우기가 끝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3일 동안 수도 프놈펜 매공강 일대에서 열리는 물 축제 ‘본 옴 툽(Bon Om Touk)’에서 대형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인파가 좁은 다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무려 450명이 압사했다.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독교 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대참사였다. 당시 캄보디아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워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1975년부터 4년여 동안 ‘크메르 루즈’라는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된 킬링필드(Killing



온누리교회는 동남아시아 선교에도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Field)대학살의 상처를 다시 떠올릴 만큼 국민들의 충격이 컸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했다.

당시 총괄수석 리준석 목사가 정부 관계자를 찾아갔다.

“캄보디아를 축복하러왔습니다”는 말에 그 어떤 집회도 불가하다던 정부관계자 마음의 문이 열렸다.

“축제를 하지 말고 종교집회를 하십시오”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였다. 그렇게 블레싱 캄보디아가 시작되었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깨우는 힘

2011년 2월 러브소나타 캄보디아, 5월에는 러브소나타 타이랜드가 개최되었다. 일본에서 시작된 러브소나타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캄보디아와 태국까지 진출했다. 집회뿐만이 아니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동쪽으로 90km 떨어진 뚜올살라마에 교회가 세워졌다. 예배당이 없어 작은 움막에서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접한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한 권사와 양재공동체가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다. 태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드러내놓고

선교할 수 없는 태국에 CGNTV 제작 센터가 문을 연 것이다. 인도네시아에도 제작센터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깨우는 힘. 한류보다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아시아 하이웨이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부는 그날까지 동남아선교는 이어진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CGNTV 설 특집 프로그램

유명인들의 삶과 신앙 조명한 영화와 다큐멘터리

CGNTV가 설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유명인들의 삶과 신앙을 조명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다.

미스코리아 이하늬 가족



토크 콘서트 ‘힐링유’ (진행 정태우, 이성혜)에서는 미스코리아 이하늬의 가족들을

소개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중요무형문화재 문재숙 교수이고, 언니는 서울대 국악과 출신의 가야금 대가다. 남동생 이권형도 국악인이다. 힐링유에서는 미스코리아 이하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이야기를 담았다. 어릴 적 몸이 약했던 남동생을 보살피며 꽃피운 가족애와 언니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이하늬가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미스코리아에 도전한 이야기 등을 들려준다.

방송은 1월 26일과 2월 2일 오전 10시 40분.

셈의장막 대표 손해석 목사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에는 퓨전 밴드 ‘셈의장막’ 대표 손해석 목사가 출연



한다. ‘셈의장막’은 고유가락을 서양 음악에 접목시킨 문화예술단체이다.

방송에서 손해석 목사는 셈의장막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한다는 자신의 비전을 소개한다.

방송은 1월 29일(수) 오전 9시 40분.

영화 ‘Hansie’



남아공 최고 인기 스포츠 크리켓의 승부 조작을 폭로해 최고의 스포츠 스타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Hansie의 삶을 담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의 신앙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했다.

방송은 1월 31일밤 11시 30분.



설 감사 · 추도예배



박만규 목사

* 가정 예배 지침

- 1) 전통적 제사는 고인에게 드리는 것이요, 명절날 추도예배는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언제나 예배의 대상과 예배 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기억합니다.
- 2) 명절에 드리는 가정 예배는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언제나 멀지 않은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3) 명절에 드리는 가정 예배는 고인을 추모

하는 예식이나, 동시에 함께 모인 일가친지와와 만남, 친구가 이루어지는 복된 날입니다. 주변의 불신 친척에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노력합니다.

- 4) 예배 시 복장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위해 기도로 준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요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5) 예배 인도자는 가장이나 가족 중 직분이 있는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된다’는 표현은 내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시인의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결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10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는 표현은 말씀이 내게 명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 살겠다는 시인의 굳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내 길에 빛으로 삼겠다는 시인의 굳은 결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7, 109, 110절을 보면 시인이 처한 환경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110절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도 홀로 서있기 어려운데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은 논리적 순서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명을 구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우리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2014년에는 하루에 세 번 10

분씩 꼭 기도하는 가족이 됩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10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합시다. 2014년에는 생명의 삶을 참고하여 성경 일년 일독을 하는 가족이 됩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인의 고백처럼 생명이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2014년에는 큐티를 생활화하고 날마다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는 가족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2013년을 보낼 때 우리는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가족, 성경 일독하는 가족, 큐티의 생활화와 말씀을 암송하는 가족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새220 / 통278장)	다같이
	경배와 찬양 128장(먼저 그 나라와)	
기도		대표자
성경봉독	시 119:105 - 112	다같이
설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입니다	설교자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새220 / 통278장).....	다같이
중보기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새해 결단, 계획을 나누며 응원하고 기도한다.....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입니다

친척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들어가는 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설날에 가족이나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언급할 때 ‘길’ 이라고 표현을

추 · 도 · 예 · 배

개식사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설날 추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새301 / 통460)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히 11:13~16	가족 중에서
설교	나그네와 분향	설교자
찬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새559 / 통305)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나그네와 분향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과도 같은 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을 소개할 때 자신들을 땅에서는 외국인이며 나그네라 고백했던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삶 또한 나그네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

나 같은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지만 갈 곳을 알지 못해 헤매는 우리와 달리 믿음의 선진들은 가야 할 곳,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분향을 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분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첫째, 나그네는 이 세상 삶에 대해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길이라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영원히 안주할 것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요, 자신은 잠시 살다가 떠날 자임을 엄숙히 고백하

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그렇다면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며 사십시오. 하루하루가, 지금 이 시간이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줄 알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나그네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분향을 향하는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유혹을 뿌리치며 삽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얻을 재물과 명예가 무엇이라고 그것에 의지하며 기대려고 합니까? 짐이 많아지면 나그네의 여행길은 오히려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면 될 수 있는 대로 배낭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 나그네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의 유혹과 욕심들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떨쳐버리고 물리쳐야 할 욕심과 유혹은 무엇입니까?

셋째, 나그네는 분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

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신자가 거할 곳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소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더 나은 분향, 천국 분향,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며 삽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할 때 그 속에는 일종의 허무주의가 배어있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나약한 마음이 스며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라고 고백할 때는 그 속에 소망이 약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안전하고 견고한 분향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분향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입술로는 나그네라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2014년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분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는, 후회 없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